

#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16살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조혈모세포를 나눠 주신 덕분에 저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는 못 나가고 있지만요. 제가 먼저 편지를 썼어야 했는데 먼저 편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부도 안하고 텅굴 거리며 놀고 있었는데 이제 곧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요.

이제 개학을 하면 친구들은 중3 과정을 공부하겠지만, 저는 중2 과정도 다 배우지 못해서 친구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요.

저의 꿈은 약사예요. 약사라는 꿈은 아프고 나서 가지게 된 꿈인데, 제가 먹는 약알 수가 많으니까 항상 그게 싫고 짜증이 났었는데 그러다 우연찮게 나중에 약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한번은 사촌 언니에게 약학과를 가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내신이 최상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어요.

조혈모세포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 우리 까꿍이의 생명의 은인께

어제 눈이 왔어요.  
그것도 아주 평평.  
이제 진짜 겨울 속으로 들어왔나봐요.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기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러 건강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연락이 늦었습니다. 우리 까꿍이(태명이랍니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식하고 나서 성장이 멈춘 듯 하더니 요즘은 부쩍 커가고 있네요. 밥, 과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같은 개월 수의 애들 보다는 작고 성장이 느리지만 '느림의 미학' 아시죠? 열심히 쫓아가고 있네요. 19개월에 걷고 말도 이제 하려는지 혼자만의 언어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식 받은 것은 180일 다 되어가고요. 180일... 진짜 꿈같은 숫자예요. 언제 올까 생각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 1년, 2년 가고 우리 까꿍이 학교도 가겠죠?

지난 1년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좋은 분과의 인연 생각하면 “세상 살맛난다.”라고 소리치고 싶어요. 우리의 천사님! 얼굴은 모르지만 항상 우리 맘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너무너무 따뜻하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항상 파이팅하세요. 우리도 파이팅 할게요.

# 너무나도 고마운 천사님 보세요...

얼굴도 한 번 뵙지 못하고, 목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한 천사님께서 베푸신 사랑,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새 생명 주신 천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도 못들어간 어린아이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이식을 받을 수 있게 사랑의 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천사님께서 쓰신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천사님이라 믿어요. 2박 3일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전신마취 또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무서워할 텐데 잘 견뎌 주시고, 무사히 마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을 가진 젊은 청년이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도 분명 천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항암제로 지칠 텐데도 웃음 잃지 않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 견뎌 주는 게 감사합니다. 예쁜 편지지에 예쁜 볼펜으로 정성 담긴 편지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해요.

정말 인연이라면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꺼라 믿어요. 너무너무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늘 평안하시길 기도드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당신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한 아이의 엄마 드림